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

신순철*

〈목 차〉

머리말

I.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세력

II. 대둔산 농민군의 전투와 함락

III. 대둔산 농민군의 무기와 탄약

IV. 연산 및 진산 농민군의 재기 시도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94년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대둔산 항쟁에 관한 글이다. 1894년 11월 초,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한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에 쫓기면서 도피와 해산의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군은 대규모 항쟁을 이어가는데, 그 중 하나의 세력이 대둔산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농민군 세력이다. 이들은 연산, 진산, 고산 등지의 농민들로 추정되며 1894년 11월 하순부터 이듬해 2월 18일까지 약 70일간에 걸친 저항을 이어갔다.

충청도와 전라도의 경계에 있는 대둔산은 자연 지형이 바위로 된 절벽이 많은 매우 험한 산이다. 농민군은 이 산 서남쪽에 위치한 150m 이상 되는 높이의 미륵바

* 원광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위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30~50명이 머물면서 관군과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1895년 2월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농민군의 진지는 함락되고 20여 명의 농민군이 희생되었다.

이 논문을 통해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정확한 위치와 접근로, 관군과 일본군의 위치, 그리고 진지 함락 당시의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로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의 노획물인 총기와 탄약,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遺構)와 유물을 통해 불태워진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수용인원과 농민군의 화력 등을 추정하였다.

주제어 : 동학농민혁명, 대둔산항쟁, 농민군, 관군, 일본군, 최공우, 탄피

머리말

1894년 11월 초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의 주력은 수차례에 걸쳐 공주성을 공격하였으나 11월 7일 우금치 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이후 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에 밀려 노성(부여군)으로 후퇴하였고, 이 시기 진잠, 회덕을 거쳐 청주성을 공격하였던 김개남 부대 역시 청주 공략에 실패하였다. 농민군의 계속된 패배는 사기에 영향을 미쳤다. 농민군 주력은 엄청난 피해와 함께 이탈자가 속출하여 11월 15일에는 황화대(논산)로 후퇴하고 11월 20일경에는 전주까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농민군이 수세에 몰려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농민군 세력은 충청도와 전라도의 접경인 대둔산 정상 부근 암벽 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관군과 일본군에 맞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70여 일을 버티다가 1895년 2월 18일(음력 1.24) 관군과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진지는 함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둔산 항쟁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駐韓日本公使館記錄』¹⁾과 양호순무영의 『右先鋒日記』²⁾, 그리고 文錫奉(1851-

1896)의 『義山遺稿』³⁾, 吳知泳의 『東學史』⁴⁾ 등과 함께 1999년 유적지를 조사한 원광대학교 사학과와 지표조사 보고서⁵⁾가 있다.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은 국사편찬위원회가 1991년 번역·간행함으로써 공개되었다. 이 책 제6권에는 대둔산 전투와 관련한 2건의 보고서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1895년 2월 18일자 대둔산 농민군 근거지 진압 당일의 전투상황과 전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대둔산부근전투상보’이고, 다른 하나는 1895년 2월 20일자로 된 ‘대둔산반거동학당토벌보고’이다. 두 보고서 모두 일본군이 조선 관군과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진 대둔산 농민군 진압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 내용에 관해서는 사료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대둔산 농민군 전투의 전모를 가장 상세하게 알려주는 자료이다. 대둔산 전투가 농민전쟁의 최후항전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으나⁶⁾ 동학농민군 잔여세력의 항전은 이듬해 4월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⁷⁾

-
- 1) 국사편찬위원회, 199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6, 「각지 동학당 정토에 관한 제보고 2」, 5)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25)대둔산반거 동학당 토벌보고, pp.19-20, 71-73, (원문, pp.276-277, 317-319.)
 - 2) 문석봉, 『義山遺稿』,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경인문화사, 295~336쪽. 『義山遺稿』는 모두 음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서 이를 모두 양력으로 환산하여 서술하였다.
 - 3) 양호순무영 우선봉장 李斗璜의 『兩湖右先鋒日記』, 을미 1월 26일조, 위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5~411쪽.
 - 4) 오지영, 『東學史』(草稿本) 2, 「義軍과 官兵接戰」,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500~502쪽.
 - 5) 대둔산 유적지는 1998년 발견되어 이듬해 원광대학교 사학과에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원광대학교 사학과·완주군, 1999,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 6)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 7)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농민군 잔여세력의 항전은 황해도 지역에서는 4월 초순까지도 수백 명이 무리를 지어 산발적인 전투를 벌였고, 호남 지역에서는 2월 말까지 계속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강효숙, 2002, 「제2차동학농민전쟁일청전쟁」, 『역사학연구』 762, 동경: 청목서점, 30쪽 참조.

『右先鋒日記』는 양호순무영 우선봉장 이두황의 진중일기이다. 이두황은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 진압에 나서서 공주전투에 참여하고 호남을 돌아 충청도로 올라가던 도중, 고산에서 장졸들을 대둔산에 파견하여 일본군과 함께 농민군 진지 함락에 나섰던 인물이며 대둔산 진지의 공격과 함락 과정을 개략적으로 기록하였다.

『義山遺稿』는 농민군의 진압에 나섰던 문석봉의 문집이다. 문석봉은 경상도 현풍 출신으로 1893년 무과에 급제하여 경북궁 오위장, 진잠현감을 역임하고 1894년 11월 양호초모사로 임명받아 공주에 근거를 두고 충청도 일대의 농민군 진압에 나섰다.⁸⁾ 그의 문집 제1권과 2권에 수록된 각종 보고 문건은 대둔산 지역을 비롯하여 공주·연산·회덕·진잠·금산 일대를 순회하면서 농민군과의 접전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둔산 농민군과 관련된 보고 문건은 '상순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5~6건과 「토비약기(討匪略記)」이다. 특히 「토비약기」에는 대둔산 농민군 진영의 동태와 진지 함락 이후 염정골(논산시 별곡면)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군의 재기 시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오지영의 『동학사(초고본)』는 '義軍과 官兵接戰'이라는 항목에서 진산 출신인 최공우가 대둔산 항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재기를 도모하다가 다시 체포되었으나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⁹⁾

대둔산 항전에 관한 연구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을 토대로 한 「신용하의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 농민전쟁」¹⁰⁾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후

8) 『의산유고』 家狀에 의하면 그는 1894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고 1896년에는 도지휘사로 의병부대를 이끌고 원주에 갔다가 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96~409쪽 참조.

9) 인쇄본 『동학사』에는 제3장 '패전후문'이라고 제목만 바꾸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초고본에는 오직 최공우 만 이름 앞에 '고산'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였다. 이는 같은 항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름만 기재하는 것으로 통일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다.

1999년 원광대학교 사학과와 완주군에 의한 지표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고 표영삼의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¹¹⁾과 이병규의 「금산 진산에서의 대둔산농민군과 민보군의 활동」¹²⁾에서 대둔산 전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문헌자료 중심의 개략적인 서술이며 현장조사 내용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둔산 농민군의 주력을 금산이나 진산지역 인물로 단정하고 있는 점도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둔산 향전 유적지의 현장조사 결과와 문헌자료를 대조하여 관군과 일본군의 이동 경로는 물론, 대둔산 농민군의 향전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둔산 농민군들이 계절적으로 연중 가장 추운 시기인 동짓달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엄동설한에 험준한 해발 720m의 산 정상 부근에 근거를 두고 70여 일 동안 항전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게 한다. 우선 농민군이 왜 이렇게 험준한 산정을 택했을까, 산 위에 있었던 농민군은 어느 지역 사람들이며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이들을 지원한 후방 근거지는 어디인지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 대둔산 농민군 진지의 규모와 세력

대둔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접경 지점에 있다. 현재 산의 남쪽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이고 북동쪽은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북

10) 신용하, 1993,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356~358쪽.

11) 표영삼, 2003,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 1, 천도교, 교리교서편찬위원회.

12) 이병규, 2002, 『금산 진산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제5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쪽은 논산시 별곡면이다. 그러나 1894년 당시의 행정구획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전라도 고산군과 진산군, 충청도 연산군이 맞닿아있는 곳이며, 현재 전라도 완주군에 속하는 산의 남쪽 기슭까지도 충청도 연산군에 속해 있었다.¹³⁾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한 장소는 대둔산 정상(마천대, 해발 877m)에서 서쪽 능선 하나를 넘어 직선거리로 남서쪽 약 450m 아래쪽에 있는 ‘미륵바위’이다.¹⁴⁾ 미륵바위는 해발 720m 높이의 암반으로 대둔산 정상 진입 통로의 서쪽 골짜기인 석도골 입구에서 1km 정도 올라가면 골짜기 끝에 커다란 암반이 우뚝 솟아있는데, 정면에 두 개의 골이 패어있고 하단부의 가로가 120m, 암반 높이는 150m에 이른다. 이 거대 암반의 꼭대기 부근에 약간의 평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이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통로는 서쪽과 북쪽으로 약 3~4m 정도의 절벽을 기어올라야 가능하다.

13)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경성: 중앙시장, 1917) ‘전주군 운선면 산북리’ 조를 보면 산북리는 ‘충남 연산군 양양소면’에서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전주군에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295쪽).

14) 당시 이곳 지형을 알려준 이규만(1932년생,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거주) 노인은 이 암반을 ‘미륵바위’ 또는 ‘형제바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러나 이 암반의 동쪽 바로 옆에 형제처럼 보이는 두 바위가 높이 서 있어서 이 암반은 ‘미륵바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국립지리원 1987년 제작 1/5000 지도(금산, 도엽번호 NJ52-13-27-053, 054)에는 이 바위를 ‘형제바위’로 표시하고 있으나 ‘미륵바위’의 착오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륵바위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림 1〉 1894년 대둔산 인근 군현도

따라서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한 미륵바위는 ‘한 사람이 만 명을 당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곳’¹⁵⁾이라는 문석봉의 표현과 같다. 농민군은 1894년 12월 중순으로부터 이듬해인 1895년 2월 18일 진지가 함락되기까지 70여 일 동안 이곳에서 관군과 일본군에 항전할 수 있었던 근거지로서 지형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군은 이 미륵바위 위에 초막 3동을 짓고¹⁶⁾ 장기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 초막 3동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그림2」의 ‘가’ ‘나’ ‘다’ 구역이다. 각 구역에 1동씩의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가’ 구역은 바닥 150㎡ 정도의 면적으로 서쪽과 남쪽을 감시할 수 있다. 또한, 동쪽과 북쪽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람을 막아주고 있다. ‘나’ 구역은 ‘가’ 구역보다 10m 정도 아래쪽에 위치하여 동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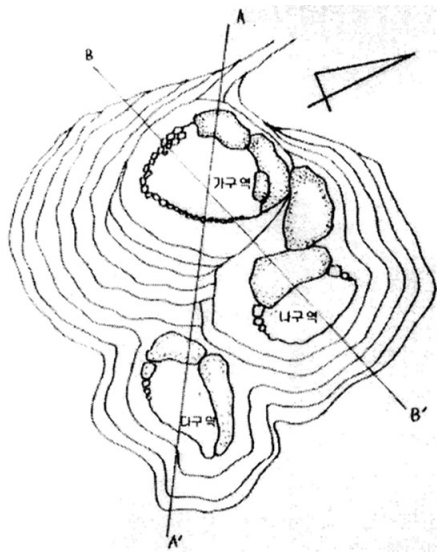
15) 앞의 문석봉 『義山遺稿』,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33쪽.

16) 「대둔산 부근 전투상보」에 의하면 ‘적은 큰바위 사이에 3채(三軒)의 가옥을 짓고 항상 여기에 거주하며 경계가 삼엄했다.’고 했고(『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1쪽) 문석봉이 순영에 보고한 문건에는 ‘두 칸짜리 집이 겨우 들어앉아 있다’(『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08~309쪽 「상순영」) 고 한 것으로 보면 3동의 건물이 있었고 이 중 ‘가’ 구역에는 2칸짜리 집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쪽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의 70m² 정도의 공간으로 서쪽은 바닥보다 10m가량 높은 절벽이 서 있다. ‘다’ 구역은 다시 절벽 사이로 조금 더 내려가면 120m² 정도의 경사면이 나온다. 이곳은 남쪽을 향하고 있으나 동쪽과 서쪽 방향 감시가 가능하며, 북쪽은 역시 높은 바위로 막혀있다.

‘가’ 구역에는 2칸 정도의 난방을 했던 온돌구조가 확인되었으며 옹기 편과 기와 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따라서 이곳은 진지의 중심 건물로 주로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구역은 동, 남 방향의 경계를 위한 초막 정도의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다’ 구역 역시 2칸 정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난방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초소와 숙소를 겸한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¹⁷⁾

진지에 올라갈 수 있는 입구는 오로지 ‘가’ 구역의 서쪽에 있는 높이 3m 정도의 절벽밖에 없다. 이 절벽의 위쪽은 1m 정도로 좁아져서 이



〈그림 2〉 대둔산 진지 배치 추정도

17) 앞의 『대둔산 동학농민혁명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22~48쪽 참조.

곳에 줄을 매달아 출입 시에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줄을 걷어 올려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이 기습공격을 시도한 곳은 진지의 뒤편인 북쪽 절벽인데 이곳은 혼자서는 오르기 힘든 4m 정도 되는 높이의 바위들로 막혀있다.

농민군 진지에 50여 명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필요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진지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넘어 350m 정도 떨어진 곳에 우물이 있다. 북쪽 능선을 넘어서면 약 100m 아래의 절터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우물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 농민군은 이 우물을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진지 ‘가’ 구역에서 발견된 다수의 용기 편은 물이나 곡식을 보관한 용기로 보인다. 또한, 진지 뒤편 북동쪽 방향 80m 아래쪽에 가마솥 아궁이 터가 있다. 이는 거주 공간이 좁고 바람이 심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피하여 초막과는 떨어져 있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안전한 곳에 별도로 가마솥을 걸어두고 취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수습된 지름 1.5cm 정도의 방울은 경계용이나 신호용으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동학농민군이 대둔산으로 피신한 시기는 12월 중순이었고¹⁹⁾ 지도자는 최공우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진압 당시 사살자 명단에 최공우는 없다. 문석봉의 기록에는 대둔산 농민군 지도자는 최공우라고 하였고 오지영의 『동학사』에도 최공우가 대둔산 농민군 진지에서 살아남았음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서 그가 지도자라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1894년 음력 11월 초순, 우금치 전투에서 패전한 농민군 진영 가운데 연산, 진산, 금산 방향으로 내려오던 농민군 세력 가운데

18) 위의 보고서.

19) 『東學史』에는 ‘고산 최공우군은 공주에서 패하여 돌아와 수백명의 군을 거느리고 고산 대둔산 최고봉 석굴 속에 웅거하였는데’ 라고 하였고,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에는 ‘지방민의 말에 따르면 적(농민군-필자)은 작년 음력 11월 중순경부터 5,6명이 산위 암굴 속에 살고 있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다. 앞의 『東學史』, 500쪽, 『駐韓日本公使館記錄』, 71쪽.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수십, 또는 수백 명의 농민군들은 산세가 험준하고 적은 인원으로도 방어가 용이한 대둔산 정상 부근 미륵바위로 피신하여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공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영삼은 최공우를 진산 농민군지도자로 추정하였으나²⁰⁾ 고산 출신의 농민군 지도자로 당시에 연산 염정골에 거주한 인물로 판단된다. 이는 오지영이 『동학사』 초고본에 ‘高山 崔公雨軍’이라고 하였고 대둔산 진지가 함락된 이후 염정골에서 재기를 도모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가 달아났다는 기사가 근거가 된다. 또한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고산 주암동에서 최공우의 심복 김공진을 잡아와 농민군 지도부의 이간책에 이용하였다’²¹⁾는 등의 기록이나 문석봉이 대둔산 북쪽인 염정골의 농민군 진압을 위해 여러 차례 내왕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공우는 고산 출신의 인물로 대둔산 일대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²²⁾ 그러나 당시 고산은 현재 완주군 고산면 지역뿐만 아니라 완주군 운주, 비봉, 경천, 화산, 동상, 삼기면 일대를 관할하는 매우 큰 고을로 동으로는 금산에, 북으로 연산, 진산에 접하고 서쪽으로는 은진, 여산에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산, 진산과 고산의 농민군 진영이 서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대둔산 진지에 입산한 농민군의 숫자는 자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동학사』는 ‘수백 명’이라 했고, 일본군 기록에는 진압 전날 정찰 시에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진압 당일에는 25명이 모두 사살되었다고 했다. 또한 관군 기록에는 30여 명이 있었으나 10여 명이 도망하고 20명을 사살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³⁾ 노획물 가운데

20) 표영삼은 최공우를 진산지역의 농민군 지도자로 추정하였다(표영삼, 앞의 논문 21쪽).

21) 機密將校 吳亨德 往高山舟巖洞 捉得崔公宇,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34쪽.

22) 앞의 『동학사』 초고본에 ‘高山 崔公宇軍’이라 했고,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機密將校 吳亨德 往高山舟巖洞 捉得崔公宇’라는 구절(『총서』 9, 334쪽)을 보면 고산인이 틀림없어 보인다.

화승총의 숫자도 인원 추정에 일정한 도움이 된다. 일본군 기록에는 50정, 관군측 기록에는 60정²⁴⁾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함락 당시에는 30여 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량보급과 산 아래 후방 근거지와와의 연락이나 정보 수집을 위하여 내왕하는 인원과 임산부와 12세의 어린이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진압 전날 일본군이 들은 바와 같이 50여 명 이상이 상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기록과 미륵바위의 면적을 고려하면 50여 명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일부 인원은 산의 북쪽 염정동과 은밀하게 연계하면서 산의 남쪽으로는 고산 일대에까지 서로 연결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둔산 진지에 거주하고 있었던 인물은 기록마다 다르다. 진지 함락 당시 일본군의 기록에는 사망자는 도금찰 최학연, 도집강 장지흥, 도집강 최고금, 도집행 이광의, 도집행 이광우, 대정 이시열, 접사 조한봉, 접주 김재순, 접수 진수환, 교수 강태중, 봉도 전판동 등 11명²⁵⁾이다. 문석봉의 기록에 나오는 인물은 고판광, 김치삼, 김태경, 송인엽, 장문화, 정옥남, 최사문 등 7명과 문석봉의 이간책에 이용했다는 김공진, 그리고 진지 함락 이후 재기를 도모한 것으로 나오는 양양옥, 박중집, 이흥기, 김치선 등 12명²⁶⁾이다. 두 기록의 인원을 합하면 모두 23명이다. 무엇보다 두 기록에 동일한 인물은 없으며 다른 문헌에서도 이들 23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출신지역 조차 알 수 없으나 염정골과 인근 마을조사를 통해 후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과 『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8쪽.

24) 위 책 같은 쪽.

2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26)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329쪽, 335쪽.

II. 대둔산 농민군의 전투와 함락

대둔산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전후 4차례에 걸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진지는 험준한 산악의 절벽에 위에 있어서 당시에 사용된 포의 사정거리에 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은 모두 300m 이상 떨어져 있어 총격으로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관군이 접근하면 농민군은 진지에서 돌이나 통나무를 절벽 아래로 굴러 접근을 차단하였기 때문에 진지의 사정거리 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였다.²⁷⁾

당시 대둔산은 연산군 관할이었기 때문에, 1895년 2월 3일 충청감영은 양호소모사 문석봉으로 하여금 감영군을 이끌고 가서 대둔산 농민군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2월 4일 양충으로 무장한 감영군 40여명을 이끌고 현장에 도착한 문석봉은 조방장 김학립과 함께 산을 올라 양포를 쏘며 공격하였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어 퇴각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마침 금산 의병장 김진용이 300명의 민보군을 거느리고 오자, 문석봉은 이들에게 대둔산 농민군의 진압은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는 정책밖에 없다고 일러두고 대둔산 북쪽인 연산 염정동으로 갔다.²⁸⁾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 무렵 ‘민보군이 공격을 하다가 한 명이 총을 맞자 크게 겁을 먹고 금방 흩어져 달아나 버렸다’²⁹⁾고 하였는데 이는 김진용의 민보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일대의 농민군은 ‘2월 11일 진산군수 하경석을 처형하고 금산까지 가서 진을 쳤다’³⁰⁾고 할 정도로 대둔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

27) 앞의 「대둔산부근 전투상보」.

28)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08~309쪽 「상순영」.

29)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1쪽.

30)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0~321쪽 「상순영」.

역 농민군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문석봉이 순영에 올린 보고에는 ‘그 무리 수천 명이 고산의 대곡 등지에 모여 마천대 굴택의 적과 염정동 본토의 무리들과 같이 세를 이루기 때문에 화를 예측할 수 없으며 대곡에서 살해당한 것이 진산군관 외 파수꾼이 수십 명에 이르고 염정동에서 살해당한 것이 연산 향소 외 본토인들이 십여 명이 된다.’³¹⁾고 하였다.

위 사실은 농민군에 의한 민보군의 피해와 이 지역 농민군들이 대둔산 진지의 농민군과 연계하여 그 세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둔산 진지의 농민군과 고산 대곡동, 그리고 연산 염정동 그리고 진산의 농민군은 연계되어 있으며 그 중심이 대둔산 농민군 진영이었음을 시사한다. 문석봉은 2월 13일 다시 신영 병정 40명을 이끌고 고산으로 와서 대둔산 진지를 공격하였다.³²⁾

또한, 2월 15일경 공주에서 군사가 와서 17일까지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는 일본군의 보고 내용이나 2월 17일 일본군 지대가 대둔산에 도착했을 때 목격된 ‘전주에서 파견된 30여 명의 한병(韓兵)’이 산 위에 대포를 올려놓고 포격을 가했으나 대포의 위치가 농민군 진지로부터 1.5km나 떨어져 있어 포탄이 진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다.’³³⁾는 내용 역시 문석봉과 공주 감영군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의 농민군 세력은 공주전투 이후 대둔산 정상 마천대 부근 150m 높이의 미륵바위 절벽 암반 위에서 3동의 초막을 짓고 장기전에 대비한 거점을 마련하고 은밀하게 고산 연산 진산지역 농민군과 연락을 취하면서 대규모 재기를 도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주 감영군은 접근전 자체가 어려워 손을 쓸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31)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1~322쪽 「상순영」.

32)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0쪽.

33) 『右先鋒日記』, 을미 1월 26일조, 앞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6쪽.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일본군의 개입이었다. 1895년 2월 18일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에 의하여 대둔산 농민군 진지는 함락되었다. 이날은 눈이 내린 가운데 날씨가 풀리면서 안개 낀 날씨를 틈타 관군과 일본군은 진지 서쪽과 북쪽 양면으로 접근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 무렵, 안개 속에서 불시에 후방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은 농민군은 제대로 반격도 하지 못한 채 20~25명이 일시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날의 전투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군 기록과 관군 기록을 종합하여 전투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2월 16일 이두황이 인솔하는 장위영군은 고산에 도착하여 연산과 고산의 접경지대에 있는 농민군 진지를 돌아보고 고산현에 있던 일본군 중대장 이시쿠로 코우세이(石黒光正)와 상의하여 장병 30명을 파견하기로 합의하였다.³⁴⁾

2월 17일 고산에서 일본군과 장위영군 30명은 농민군 토벌 명령을 받고 대둔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일본군은 중로분견대 지대군 3분대 30명을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武内眞太浪)가 인솔하였고 순무영군은 별군관 윤세영, 김광수와 교장 장세복이 인솔하는 30명이었다.³⁵⁾ 오전 7시 30분 고산을 출발하여 오후 4시 30분 대둔산 아래 기동³⁶⁾에 도착하였다. 진압군은 이날 별도의 공격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둔산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한 병력은 관군과 일본군을 합해 모두 60명과 지휘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날 오후,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 신타로와 별군관 윤세영 김광

34) 위 책 같은 쪽.

35) 앞의 『양호우선봉일기』와 『주한일본공사관기록』에는 장위영군과 일본군 각 30명이라 하였으나, 대둔산 농민군 진지 함락 전공 포상 요청 내용에는 순무영군 34명, 일본군은 50명을 요청하여 24명의 차이를 보인다.

36) 기동은 현재 전북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의 대둔산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이다. 1895년 당시 행정구역은 충남 연산군 양양소면 산북리였다.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경성: 중앙시장, 1917).

수는 산 위로 올라가 농민군의 동태와 지세를 면밀하게 정찰하고 그 동안에 있었던 전투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때 분석봉이 이끄는 공주 감영군 또는 금산 민보군의 포격이 목격되었다. 현장답사와 각종 정보를 종합한 이들은 이튿날 새벽 3시에 기습공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부근 민가에서 숙영하였다.

2월 18일 새벽 3시에 병정들이 집합하였으나 날씨가 비바람이 심하고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이 트기를 기다렸다. 오전 5시에 농민군 진지의 전면을 공격하면서 배후를 기습 공격하는 양면 공격작전이 개시되었다.

새벽 5시에 먼저 별군관 윤세영 김광수와 함께 일등군조 코마츠 나오키(小松直軒)가 인솔하는 일본군 2개 분대를 출발시켜 이들은 약 16km를 돌아서 진지의 배후에 도착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6시 30분경, 다케우치가 인솔하는 일본군 1개 분대와 강화영병 30명을 석두골을 통해 농민군 진지 정면으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4m나 되는 공격용 사다리를 만들어 눈이 쌓인 험로를 기어올라 농민군 진지 100m 앞까지 도달하였다.

그러나 공격을 알아챈 농민군들이 안개 속에서도 돌과 통나무를 굴러내리자 이들은 정면 공격을 포기하고 왼쪽 능선으로 기어올라 9시 15분경 왼편 위쪽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도착하였다. 산 위에서는 안개 때문에 아래쪽에서 사람의 말소리만 들릴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전 10시, 특무조장 코마츠 일행이 농민군 진지의 배후에 도착하였다.³⁷⁾ 곧 공격을 위한 병력 재배치가 이루어졌다. 농민군 진지의 전면

37) 코마츠의 2개 분대가 새벽 5시에 경에 출발하여 '40리를 우회'하여 10시경에 농민군 진지 뒤쪽 고지에 도착하였다고 했다. 그 경로를 추정해보면 2가지 코스가 가능하다. 우선 거리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기동→이치고개→태고사→낙조대→마천대→진지 뒷쪽 능선까지 약 15Km 정도 거리다. 이 코스는 강설 후의 새벽안개길 임을 고려하면 5시간 정도에 접근 가능한 길이다. 다음으로 기동→이치고개→능선길→

서쪽 200m 경사면에 교장 장세복의 지휘 아래 강화영병 20명을, 나머지 강화영병 10명과 일본군 1개 분대는 서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코마츠가 인솔하는 2개 분대는 농민군 진지 뒤쪽 고지에 배치하였다. 그러나 아직 안개가 짙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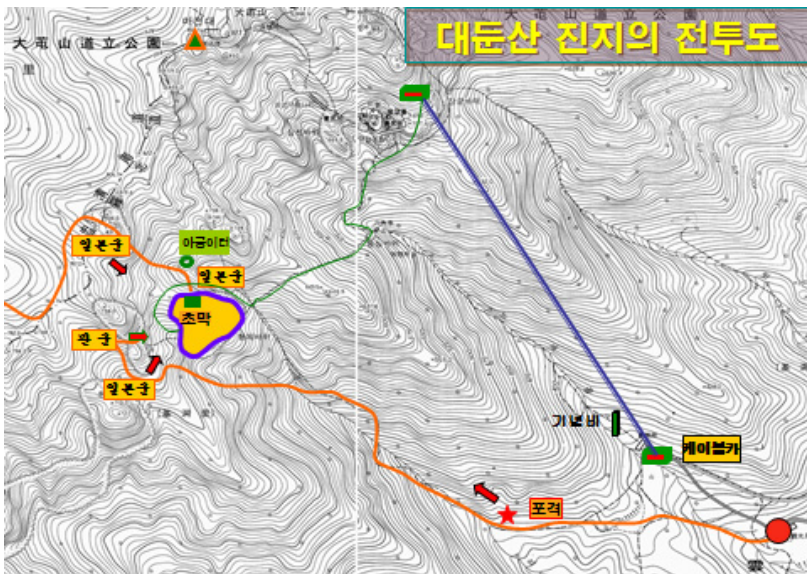
11시 10분경,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안개가 걷히자 농민군 진지가 드러났다. 얼마 후, 농민군 5~6명이 진지 출입구에서 내려와 진압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이때 관군이 총격을 가하자 농민군 1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황급히 줄을 타고 올라갔다. 관군은 그 후 계속 사격하여 총격전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농민군은 진지 서쪽 절벽 끝에 돌을 쌓아 총구를 내고 그 위에 통나무를 올려놓고 숨어서 사격하였기 때문에 관군의 사격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대치상황이 계속되자 농민군 진영에서도 총공세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오후 1시 40분, 일본군은 이른바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일본군 특무조장 다케우치는 3곳에 배치된 병력에게 농민군 진지를 향해 집중 사격을 명령하고, 자신은 별관 윤세영 김광수와 함께 일본군 1개 분대를 이끌고 진지 후면을 기습하기 위하여 진지 북쪽으로 가서 사람으로 사다리를 만들어 절벽을 기어올라 농민군 진지의 ‘가’ 구역 북측으로 진입하여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농민군은 북쪽 절벽으로 진압군이 기습하리라는 예상을 하지 못한 채, 기습공격에 당황하여 이리저리 허둥대며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나 바위 굴속에 숨기도 하였다. 그러나 불과 20여 분 만에 농민군은 모두 살해당하고 초막은 모두 불태워졌다. 이때가 오후 2시경이었다.

낙조대→마천대→진지 뒷편 능선으로 가는 길인데 거리는 약 5Km 남짓밖에 되지 않으나 시간은 4~5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이다. 일본군이 어느 코스로 접근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에도 산의 남쪽으로 오르는 길은 현재 케이블카가 놓인 코스와 용문굴 코스가 모두 2Km 남짓 되는 거리이다. 그러나 이 두 길은 눈이 내려 급경사 바윗길을 오르기가 쉽지 않고 농민군 진지에서 육안으로 조망이 가능하고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군 측 기록에 의하면 사망자는 25~6명이었고 생존자는 어린 소년 1명이었다고 했다, 사망자는 모두 접주 이상의 인물들이며 28·9세쯤 되어 보이는 임신부도 총상으로 사망하였고 접주 김석순은 한 살쯤 된 딸아이를 안고 계곡으로 뛰어내리다가 바위에 부딪혀 죽었다고 하여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당시 살아남은 자는 모두 생포하려 하였는데, 자신들이 돌격한 후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관병들이 모두 죽었다고 했다. 표영삼은 이 기록이 일본군의 만행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³⁸⁾ 하였으나 관군의 군공성책에 의하면 김광수 등 4명을 농민군 사살의 공로로 제 1등 군공으로 추천하고 있다.³⁹⁾는 점에서 보면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3〉 대둔산 진지 함락시 전투 배치도

38)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표영삼 앞의 논문에서 이를 허위로 판단하였다.

39) 『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10쪽.

일본군 기록에는 농민군 진지를 공격하여 25·6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관군 측 기록에는 사살자가 20명이었다. 유일한 생존자였던 12살 난 어린이는 진지에 거주하던 농민군의 숫자는 30여 명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중 10여 명은 도망하고 주동자 4명은 피살자 중에 있다고 하였다.⁴⁰⁾

또한, 나중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오지영은 최공우가 일본군의 기습공격 당시 쌀가마니(空石)를 뒤집어쓰고 뛰어내렸으나 절벽 가운데 나무에 걸려서 천신만고 끝에 절벽을 내려와 재기를 도모했다는 내용이 있다.⁴¹⁾

그런데 문석봉의 기록에는 대둔산 농민군 진지 함락에 관한 전혀 다른 주장이 기록되어 있다. 문석봉이 진지 함락 2일 전에 이간계를 써서 농민군 지도부의 내분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다. 즉 문석봉은 농민군 진지가 함락되기 4일 전인 2월 14일 진산읍에서 8km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 최공우의 신뢰를 받는 대둔산 아래 주암동 김공진을 잡아와서 산 위의 농민군 최공우 부자를 비롯한 농민군 지도부를 이간시키기 위한 비밀 편지와 이간 계락을 일러 이튿날 산 위로 올려보냈더니 다음날 최공우 부자가 장문화, 김치삼 등을 살해하여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는 것이다.⁴²⁾ 그러나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대둔산 농민군 진지는 엄동설한을 무릅쓰고 70여 일간 대둔산 일대의 연산 진산 고산 농민군 지휘부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민보군의 이간책과 일본군과 관군 60여명의 합동작전으로 70여 일간의 항전은 20여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끝나게 되었다.

40) 위 같은 책, 408~409쪽.

41) 앞의 『東學史』, 502~503쪽.

42) 『義山遺稿』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9쪽. 표영삼은 앞의 논문에서 이를 꾸며낸 이야기로 규정하였으나 사실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부정할 근거도 없어 보인다. 표영삼, 앞의 논문, 25쪽.

III. 대둔산 농민군의 무기와 탄약

대둔산 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총기를 사용하였다. 이들이 어떠한 종류의 총을 가졌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진지 함락 당시의 압수품 기록과 1999년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탄피와 탄환 밖에 없다.

일본군 기록에는 농민군 진지 함락 당시 압수된 총은 화승총 50정과 탄약 약간이라 했으며 관군 기록에는 총 60자루를 노획하였으나 모두 부수었다고 했다.⁴³⁾ 따라서 농민군의 주 무기는 화승총이었으나 화승총의 종류도 다양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표조사에서 수습된 탄약류 15점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탄피 2점과 납탄환 8점을 전쟁기념사업회에 감정을 의뢰하여 농민군의 화력 실상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각 탄약류의 사용 총기명

농민군 유적지에서 수습된 탄약, 파편류는 모두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동학농민군과 관군 및 일본군 사이의 전투 과정에서 사용되었다고 보여진다.

탄피 a (길이 54mm, 지름 20mm)는 초기 약협식 탄환의 산탄의 탄피이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탄환이 탄피 속에 들어가며 뇌관식 소총에서 근대 약협식 화기로의 전환기에 개발된 소총에서 사용되었다. 아래의 산탄 3점은 이 탄피에 들어있던 산탄환으로 추정된다.

탄피 b (길이 53mm, 지름 15, 13mm)는 근대식 화기가 개발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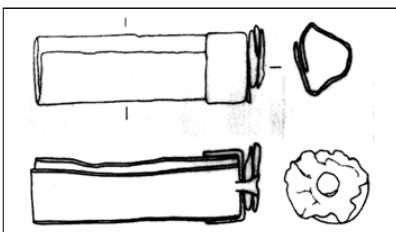
43) 『駐韓日本公使館記錄』에는 ‘火繩銃 五十挺 火藥 若干’이라 했고, 『右先鋒日記』에는 ‘所獲 銃六十柄 銃子破碎’라 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73쪽,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5, 408쪽.

이전 수입해서 이용했던 영국제 스나이더 소총이나 미국제 레밍턴 소총의 탄약으로 추정된다. 1900년 이후 개발된 화기의 경우, 그 구경이 대체로 10mm 이하인데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유적지에서 수습한 탄피 b는 지름이 15mm인 것으로 보아 1900년 이전인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총기에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

탄두 a (길이 25mm, 지름 15mm), b (길이 23mm, 지름 14mm), c, d는 근대식 초기의 캐틀링 기관총의 탄약 탄두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탄(3점, 지름 12·11·9mm)은 초기 약협식 탄약인 산탄 탄약에 사용된 산탄으로 추정되며, 화승총의 탄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탄두 e는 탄피 b의 탄두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납덩어리는 탄두가 불에 녹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4〉 탄피 a 사진



〈그림 5〉 탄피 a의 구조도



〈그림 6〉 탄피 b 사진



〈그림 7〉 탄두 a, b, c, d 사진



〈그림 8〉 탄두 e, f 사진



〈그림 9〉 탄두 g, h 사진

2. 각 탄약류의 사용 시기와 사용자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유적지에서 수습된 탄약류들은 19세기 후반 한국과 일본에서 널리 사용된 것들이며 한국에서의 사용 시기는 일본보다 늦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은 레밍턴 소총, 무라타 보병총, 스나이더 소총, 마티니-헨리총 등을, 동학농민군은 화승총과 함께 근대식 화기인 레밍턴 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군의 주력 화기는 무라타총이었다. 수습된 탄약류의 구경을 비교하여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무라타 총의 개발 이전에 사용된 화기의 탄약으로서 일본군보다는 관군 또는 동학농민군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⁴⁴⁾

이상과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농민군 진지에서 수습된 탄약류는 진지 함락 과정에서 일본군이나 관군이 사용한 탄약이라기보다는 농민군이 보유하고 있었던 탄약류이고 그 일부가 초막이 불타면서 녹아내린 흔적으로 보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농민군의 주된 무기는 화승총이었고 탄약은 약협식 탄피에 탄두가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들어가는 재래식 탄약류였다. 유적지에서 나온 스나이더 또는 레밍턴 소총의 탄약류는 당시 관군이 널리 사용하고 있었던 소총류였기 때문에 농민군이 관

44) 전쟁기념사업회, 1999, 「대둔산농민혁명유적지 발굴 탄약류 감정결과」, 참조.

아에서 빼앗아 소유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마지막 전투에서 진압군 측에서 사용된 것일 수도 있다.

그밖에 스나이더 소총이나 레밍턴 소총의 총열 이음부를 감싸는 띠로 여겨지는 쇠고리(지름 37mm, 두께 12mm)도 수습되었다.

이러한 유물들이 유적지에서 100년 이상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1894년 이후 20여 명이 살해된 농민군 진지에 누구도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근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산에 나무하러 갈 때 어른들도 그곳에 올라가는 것을 꺼렸다는 것이다.⁴⁵⁾ 탄약류는 주로 ‘가’ 구역에서만 발견되었고 ‘나’ ‘다’ 구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두 구역은 바람이 심하고 토사가 흘러내리는 지형이기 때문으로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연산 및 진산 농민군의 재기 시도

1895년 2월 18일 농민군 진지가 함락된 이후, 대둔산의 북쪽 연산 염정골⁴⁶⁾에서는 농민군의 재봉기가 추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석봉의 「토비약기」에 의하면 ‘염정동에는 봉기에 호응하는 농민들이 많아 동태 파악이 쉽지 않았으며 연산 현감이 첩자를 보냈으나 그는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⁴⁷⁾ 고 했다. 앞의 『동학사』에 최공우가 진지 함락 당시 살아서 내려와 재기를 도모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연산에서의 재봉기 시도는 사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학사』에 의하면 최공우가 재

45) 앞의 이규만 노인의 구술증언.

46) 대둔산 북쪽에 소재한 자연 촌락으로 규모는 400여 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현재 행정구역 상으로는 논산군 벌곡면 도산리, 수락리 일대와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일대이다.

47) 앞의 「討匪略記」, 참조.

기를 도모하다가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다가 달아났다고 한다.⁴⁸⁾

이를 종합적으로 추론해보면 대둔산에 농민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당시에 고산의 대둔산 남쪽 대곡마을과 북쪽인 연산과 동쪽인 진산 일대는 농민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염정골의 경우에는 마을 입구에 농민군 파수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나 최공우가 재기를 도모했던 사실에서 보면, 대둔산 농민군의 후방 근거지는 염정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석봉의 「토비약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대둔산 진지 함락 당일인 2월 18일 문석봉은 회덕에 있었다. 그는 연산현감 정대위로부터 고산의 최사문·최공우·양양옥·박중집·이흥기·김치선 등이 청산의 농민군 봉기 소식을 접하고 1,000여 명을 모아 이에 호응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 소식에 그는 오후 늦게 회덕에서 병정 20명과 장관(將官) 23명을 거느리고 염정골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진잠현의 증촌마을까지 달려와 유진하였다. 여기에서 보부상을 마을로 들여보내 염정동의 동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이수령 고개에서 농민군 파수꾼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문석봉은 다시 장관을 보내 마을 입구에서 피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하던 중 진사 권도현을 만나 농민군의 동태를 물어보니 농민군의 기세가 대단하고 병기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문석봉은 하루를 기다렸다가 2월 20일 큰 눈이 내린 가운데, 오후 늦게 밥을 지어 관병들을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 염정동을 향해 이수령 파수막에서 7명의 농민군을 묶어두고 전열을 정비하였다. 다시 권도현을 앞세워 농민군 도소가 있는 염정동 김세마의 집⁴⁹⁾을 자정 무렵에 기습하여 농민군 16명을 사살하고 400여 명을 포박함으로 김세마의 집이 평정되었다. 이후 문석봉은 다시 대둔산 농민군 진지 쪽으로 4km 정도

48) 앞의 『동학사』, 501~502쪽 참조.

49) 현재 논산군 벌곡면 도산리에서 수락리 방향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있다.

올라간 곳에 있는 대성사⁵⁰⁾를 급습하여 토굴 속에서 농민군 40명을 체포하고 소와 말과 양식을 노획하였다. 2월 28일 농민군 지도자 5명의 목을 베고 400여 명을 귀순시켰으며 식량은 빈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⁵¹⁾

이러한 사실은 대둔산 농민군 세력은 고산·진산·연산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함락되자 염정동에서 재봉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재봉기의 중심은 염정동이며 대둔산 진지로 통하는 대성사에서 농민군이 체포된 사실에서도 염정골과 대둔산 농민군 진지와 연계성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대둔산 부근 고산·진산·연산지역 농민군의 거점이고, 지휘부였다면 산 위에 있었던 농민군은 그곳에 상주하는 인원도 있지만, 연산·진산·고산 지역에서 일정 인원이 교대로 근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대둔산 농민군 진지가 함락된 이후 농민군은 염정동에서 재봉기를 도모했으나 문석봉이 이끄는 40여 명의 감영군에 의하여 좌절되었고 이후 고산·연산·진산 지역의 농민군 잔여세력은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맺음말

이 글은 대둔산 농민항쟁을 수록하고 있는 『주한일본공사관기록』, 『우선봉일기』, 『의산유고』, 『동학사』 등의 문헌자료와 지표조사보고서, 그

50) 수락리에서 대둔산 계곡 입구 쪽으로 올라가다 우측 계곡 건너편에 있었다고 하는 사찰이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다. 이 계곡은 대둔산 북쪽 계곡으로 연산에서 대둔산 진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다. 계곡 초입에서 대둔산 진지까지는 약 2.6km이다.

51) 앞의 「討匪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328~333쪽.

리고 현장 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둔산 농민군은 공주전투 패전 이후 최공우를 중심으로 하는 고산·연산·진산 지역의 농민군 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894년 12월 중순, 대둔산 정상 부근 미륵바위에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진지에는 150m 높이의 암반 위에 난방이 가능한 3동의 초막을 짓고 50여 명의 농민군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관아에서 노획한 화승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는 함락 당시 50~60정의 총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있음에서 그 사실이 확인된다.

진지는 관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용이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어 4차례에 걸친 관군과 민보군의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나 1895년 2월 18일 일본군 중로 지대와 순영군 60여 명의 삼면 공격과 후방 기습공격으로 진지는 함락되고 말았다.

함락 당시 거주자는 30여 명이었으나 10여 명은 도망하고 20여 명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죽은 사람 가운데에는 20대 후반의 임산부도 있었고 한 살 된 아이를 안고 절벽을 뛰어내리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알 수 있다.

진지가 함락되자 대둔산 농민군의 후방근거지였던 연산 염정골에서는 재기를 위한 농민봉기가 시도되었다. 그러나 문석봉이 이끄는 공주 감영군이 염정골을 기습하여 수많은 농민군이 체포되고 20여 명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농민군 진지터에서 수습된 탄약류들은 지름 10mm 이상의 1900년대 이전의 약협식 탄환과 탄두들로 이는 일본군보다는 관군이나 농민군들이 사용했던 탄약류로 밝혀졌다. 따라서 대둔산 농민군은 공주전투 이후 고산·연산·진산 일대의 농민군 세력을 이끌었던 지휘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항전은 1895년 2월 중순까지 계속됨으로써 꺼져가던 농민혁명의 희망이 되고자 했다.

끝으로 대둔산 항쟁에 대해 관군 측이나 일본군 측 기록에 사망자의

시신 처리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었는지, 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인근에 매장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 일부 후손들은 가족을 찾기 위해 몰래 찾아왔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에 관한 구전도 전해오는 바가 없다. 비록 130여 년이 지났지만, 유적 현장과 부근 지역을 발굴하여 그 흔적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투고일 : 2024. 3. 31.	심사일 : 2024. 4. 26.	게재확정일 : 2024. 4. 29.
--------------------	--------------------	----------------------

참고문헌

〈자료〉

- 1996, 『兩湖右先鋒日記』,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15, 경인문화사.
경성, 중앙시장, 1917, 『新舊對照 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국사편찬위원회, 199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6.
문석봉, 1996, 『義山遺稿』,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9, 경인문화사.
오지영, 1996, 『東學史』(草稿本),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1, 경인문화사.

〈단행본〉

- 원광대학교사학과·완주군, 1999, 『대둔산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표조사보고서』.

〈논문〉

- 강효숙, 2002, 「제2차동학농민전쟁일청전쟁」, 『역사학연구』 762, 동경, 청목서점.
신용하, 1993, 「갑오농민전쟁의 제2차농민전쟁」, 『동학과 갑오농민전쟁』, 일조각.
이병규, 2002, 「금산 진산지역에서의 동학농민혁명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영삼, 2003, 「금산지역 동학혁명운동」, 『교리교사연구』1, 천도교교리교서편찬위원회.

〈Abstract〉

The Donghak Peasant Army's Resistance at Daedunsan Mountain

Shin Soon Chul*

This essay is about the Donghak Peasant Army's resistance at Daedunsan during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in 1894. In early November 1894, the peasant army, defeated at the Battle of Ugeumchi in Gongju, experienced a series of fleeing and disbanding as they were chased by Joseon governmental forces and Japanese forces. However, some of the peasant army continued large scale resistances, and one of the forces that did so were the peasant forces that occupied a camp in Daedunsan Mountain. This force is presumed to be consisted of peasants from Yeonsan, Jinsan, and Gosan, and they continued their resistance for 70 days, from late November of 1894 to February 18th of the following year.

Located between the borders of Chungcheong-do and Jeolla-do, Daedunsan is a very rugged mountain, with many rocky cliffs forming the natural formation. The peasant army formed their base atop Mireuk Rock, which was located to the southwest of the mountain and was over 150m high. Thirty to fifty men garrisoned the base and resisted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However, in February 1895, the base fell to a surprise attack from the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and around 20 men from the peasant army were killed.

* Professor emeritus of a history department at Wonkwang University

Through this essay, we were able to verify the precise location and approach of the peasant army, the location of the Joseon government forces and Japanese forces, and the path the governmental and Japanese forces took when they assaulted the base of the peasant army, using a map. In addition, the size of the burned peasant army's camp, their numbers, and their firepower were able to be estimated by analyzing the remains (such as house sites or the traces left behind by ol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s) and artifacts that were confirmed through the guns and ammunition the Japanese forces took as spoils, as well as through surface surveys.

Key word : Donghak Peasant Revolution, Daedunsan Resistance, Peasant Army, Government Forces, Japanese Forces, Choi Gongwoo, Cartridge case

